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2호 [주제 제2730호]

주제 111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음력 12월 2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국기와 함께 더 큰 승리를 마중해간다

공화국에서 2022년은 람홍색국기가 더욱 뽀뽀 휘날려온 격동의 한해, 위대한 승리와 번혁의 한해였다.

한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이해가 저무는 12월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이 땅, 이 하늘, 조국의 푸른 바다 그 어디서나 공화국기가 거세차게 나뭇기었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초강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장에 거세찬 대하마냥 펼쳐졌던 공화국기발, 전승의 환희가 차넘치는 7월의 하늘가에 아름답게 물들여졌던 국기의 삼색이며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장을 딱 채웠던 국기의 세찬 필력임소리...

초강국의 존엄과 절대적힘을 실은 세계최강의 주체병기를 만리우주에 떠올린 발사대치의 우람한 동체에도 자랑스러운 공화국기가 새겨져있다.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학교와 병원,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도 언제나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흐르는 속에 공화국기가 뽀뽀 휘날렸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누구나 푸른 하늘에 나뭇기는 국기를 숭엄하게 바라보며 위대한 나라, 강대한 조선의 아들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가슴에 간직하며 뜨거운 격정속에 국가를 불렀다.

드넓은 황금벌에도 람홍색공화국기가 새겨져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어찌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휘날렸으랴. 이 나라 남너로소 누구나의 마음속에서 일년 열두달 언제나 휘날려온 람홍색국기이다.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국력, 국위를 상징한다.

돌이켜보면 2022년에 공화국의 국기와 국광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

국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하여 새로 개발한 주체무기들이 련속 하늘로 솟아오른 1월, 대규모련포 은실농장 착공의 발파소리가 하늘가에 높이 울린 2월, 인민의 리상거리 송화거리와 행복의 별천지인 보령강간안다락식주래구 준공이 성대히 진행되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과시한 사상 최고의 열병식이 펼쳐졌던 잊을수 없는 4월, 위대한 방역대승이 이룩되던 감동깊은 나날들, 위대한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국가행부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뜻깊은 사변이 펼쳐지고 옥야를 뒤덮은 풍년철마들을 보며 온 나라 인민이 걱정할 금지 못하였던 9월,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바라는 아들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가슴에 간직하며 뜨거운 격정속에 국가를 불렀다.

력한 힘을 실은 세계최강의 주체무기의 퇴성이 온 행성을 진감시킨 11월, 우리의 힘과 기술로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하고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지에서 멋진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어게 한 12월.

정녕 2022년의 달과 달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국력과 국광, 국위가 더 높이 떨쳐진 기적과 사변, 위대한 승리의 달과 달들이었다.

이 격동의 나날 언제 어디서나 승리의 기치로 나뭇기 람홍색공화국기이다.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이 땅의 넘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기복 최고의 열병식이 펼쳐졌던 잊을수 없는 4월, 위대한 방역대승이 이룩되던 감동깊은 나날들, 위대한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국가행부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뜻깊은 사변이 펼쳐지고 옥야를 뒤덮은 풍년철마들을 보며 온 나라 인민이 걱정할 금지 못하였던 9월,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바라는 아들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가슴에 간직하며 뜨거운 격정속에 국가를 불렀다.

2022년의 기적과 승리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세계에 높이 떨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뜻과 리상,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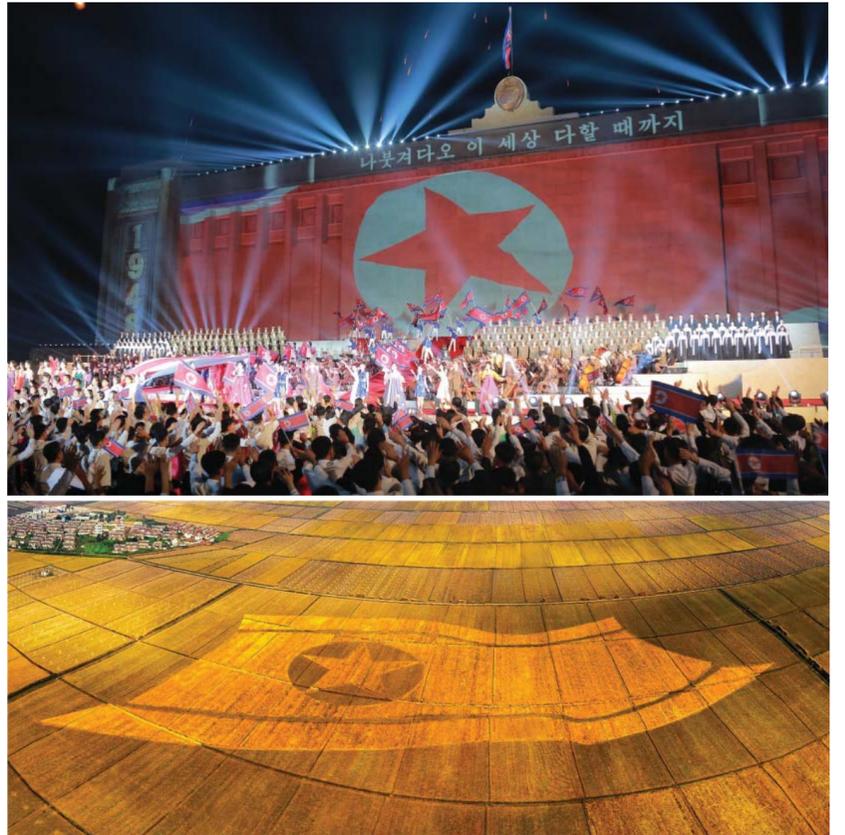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승리한다, 이것이 흘러온 2022년이 말해주는 조선의 승결, 력사의 진리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밝아올 새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람홍색공화국기를 더욱 뽀뽀 휘날리며 보다 큰 승리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2022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유래한 승리의 한해로 빛내인 국지와 자랑을 안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대한 태양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공화국기를 높이 들고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대기적을 창조해갈 천만인민의 지향과 열망을 담아 이 땅, 이 하늘가에 노래가 더 높이 울린다.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가 불멸하리 영광찬 공화국의 력사를 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뭇기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본사기자 리경철



아이들의 웃음과 미래

아이들은 순진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진실만이, 현실만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이 어린이들의 마음이라고 하였고 아이들의 표정에 당대의 사회상, 정치의 진면모가 비껴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가정에 따뜻한 정이 넘쳐나고, 노래소리가 차넘칠수록 강산은 밝아지고 사회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게 된다.

력사의 섭랑과도 같은 이 한해를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절대적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전환의 분수령으로 빛내인 공화국에 아이들의 웃

음이 넘쳐난다. 돌이켜보면 《상상초유》, 《최대국년》과 같은 업업한 말들이 그리도 자주 울린 공화국의 한해였지만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지워지지 않은 것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었다.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육과 학습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 조치를 취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머님에 넘친 그 음성이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러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당의 정책이고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임무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공화국의 전 력사에 관통되어있는 이 참다운 후대관이 이 땅에 줄기차게 맥박치게 하시며 가장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온 한해 이 땅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새해 첫날아침과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혁명적인 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받아안은 정어린 선물-《해바라기》 상표를 단 각종 연필,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 《민들레》 학습장을 비롯한 학습품들과 맛있는 식료품들, 온 나라 학생들이 받아안은 새 교복과 학습품들 그 모든것이 그대로 첫아침부터 시작되어 온 한해 걸음을 모르고 이어진 아이들의 웃음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

지난 2월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소식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육아법의 조항조항을 읽으며 공화국인민들은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온넉으로 절감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어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를 위하여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어린이도 많다. 그리고 첫제품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허나 온 나라 아이들이 누구나 똑같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첫제품을 먹으며 행복에 겨워있는 모습을 이 행성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위대한 어머니의 파사로운 사랑은 시련의 나날에도 변함 없었다. 지난 5월중순 불발적인 비상방역위기로 누구보다 크나큰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갓난애기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고충까지 헤아리시고 애기젖가투와 암가투를 시급히 공급하도록 하여 주시어 어머니들의 소원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신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던가. 아이들이 웃는다! 그것은 참으로 힘이 솟는 말이다.

그 나라의 강대함과 무궁한 앞날을 가늠하는데서 아이들의 웃음만큼 소중한것은 없다. 그러나 이 넓은 행성을 둘러보면 밝게 웃어야 할 아이들이 내전과 총돌, 경제위기

를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를 위하여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어린이도 많다. 그리고 첫제품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허나 온 나라 아이들이 누구나 똑같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첫제품을 먹으며 행복에 겨워있는 모습을 이 행성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위대한 어머니의 파사로운 사랑은 시련의 나날에도 변함 없었다. 지난 5월중순 불발적인 비상방역위기로 누구보다 크나큰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갓난애기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고충까지 헤아리시고 애기젖가투와 암가투를 시급히 공급하도록 하여 주시어 어머니들의 소원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신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던가. 아이들이 웃는다! 그것은 참으로 힘이 솟는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근심과 걱정을 모르며 언제나 밝게 웃고있다.

공화국의 참모습도 행복넘친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있다. 아침해님 솟아오르면 달랑 달랑 《소나무》 책가방 메고 12년제꽃대문으로 들어신다. 외진 산골마을 아이들도 통학렬차와 통학배를 타고 웃으며 학교로 간다.

누구나 《해바라기》 학습품을 손에 들고 새하얀 《민들레》 학습장에 사각사각 우렁갈을 껴서 써나가며 매일의 꿈을 지레워가고 사랑받친 첫제품을 공급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는 공화국의 아이들.

자식들의 씩씩하고 구질갈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나 격정속에 다시금 우러른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든든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실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이 아니라 행

복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후대사랑을 저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온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또다시 아이들의 대화합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민족사적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태어난 위대한 강국의 새 전기를 열어놓은 2022년을 더욱 빛나게 장식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서 누구나의 환희와 걱정은 더욱 크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세상상이여 부러워하라고 행복의 웃음꽃을 한껏 피우려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그려만 보아도 가슴은 절로 높인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이 더욱더 심금을 울려준다.

아이들의 웃음, 그것은 그대로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이고 전도이며 사랑과 정,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 부럼없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누구나 더욱더 강대하고 번영할 공화국의 래일을 확신하게 된다.

본사기자 손지성



방역 대승을 안아온 위대한 힘

2022년, 홀러는 이해의 날과 달 들은 공화국에 있어서 일찌기 겪 어보지 못한 사상초유의 도전과 장애를 맞받아 뚝고 눈부신 기적 과 승리를 떨쳐온 긍지높은 나날 들이었다.

올해에 공화국이 이룩한 사변적 성과들중의 하나가 인민의 생명안 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방역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것이다. 세계 적인 보건위기속에서 2년 3개월에

걸쳐 나라의 방역장벽을 굳건히 지켜온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뜻 밖의 악성전염병류입으로 초래된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전염병확 산사태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안전을 회복한것이야말로 인류 사에 특기할 기적이 아닐수 없다.

하다면 세상사람들이 《세기적 인 수수께끼》라고 경탄하여마지 않는 그 기적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가장 적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원인을 알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범위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전파확산되는 최대비상 사태가 조성되었다.

인민을 위하여 당도 있고 국가 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있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성된 최종 대사태에 대처하여 더욱 고조되는 강도높은 방역정책들을 련이어 결 행하시였다.

직접 연구하시어 제시하신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가적 인 약품보장과 공급대책을 강하 게 세우고 치료사업을 본격적으 로 벌리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어 악성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 화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 근사위원들의 약품이 수요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치료에 서 지장을 받고있는 실태를 로 해하시고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 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 군사위원회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 하시였다.

악성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치 료방법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사 업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해결해주시는 문제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수도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약 품공급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 고 사람들의 체질과 특성, 해당 지 역의 실정에 맞는 치료방안을 확 립하고 적용 및 보급하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됨으로써 악성 병마의 위협에서 인민들의 생명 을 구원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사실 최대비상방역전의 초기 전 국적으로 악성전염병이 동시다발 적으로 퍼지고 하루유열자수가 수 십만명씩 급증하는 조건에서 사 람들이 자체로 병치료를 할수 있 는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확립하 고 보급하는 사업을 빨리 선행시 키지 않고서는 치명률을 줄일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건부 문에서 악성비루스감염증을 완치 할수 있는 최량화, 최적화된 약 물투여방법을 찾고 치료전술을 바 로세우며 그것을 국가적으로 규 격화하고 치료안내지도서로 발급 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그 후 해당 부문들에서 인민들 에게 전염병방지와 치료에 필요 한 상식선전사업을 진행하며 대중 의 리해를 도모할수 있는 편집물 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대중보도 수단들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여 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던 사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다 밝혀주시였다.

라잡게 바라보기만 할수밖에 없 으셨던 속라들던 순간들, 그리고 매일같이 폭발적으로 급증하 는 전염병전파상황을 보고받으시 던 괴로운 순간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 내시며 자신의 피와 살피고도 같 은 인민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결사수호의 의지로 마음 을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 다.

최대비상방역전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시 는 문건만 하여도 무려 1 772건에 달 하는 22 956페이지, 련이어 소집하신 중 요당회의만 하여도 10여차례 달 한다.

얼마나 긴장하게 사임하시였으 면 당회의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조차 문건을 펼쳐들고 보시며 걸으시였으랴.

방역전의 명안들을 하나하나 확 정해주자고만 하여도 상상을 초월 하는 실험과 로고를 바치셔야 하 였다.

하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 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다,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총심성과 헌신 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 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 시며 방역대전의 승리를 위해 눈 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 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어떤 비상한 각오를 안고 어떤 희생적 인 정신으로 방역정책을 진두 지휘하고계셨는지 인민들은 다 는 모르고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경애하 는 원수님께서서 지난 5월 수도의 약

국들을 찾으시어 악성전염병을 금 방 앓고난 판매원들을 만나신 사 실만을 알고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첫날밤 국가비상방역사령 부를 찾으시였을 때 그곳 일꾼들 도 한창 악성전염병에 감염되어 앓고있는 상태였다. 그 위험한 곳 에 나오시어 심신을 주시고 절대 로 지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을 다해나가라고 고무해주신 경애하 는 원수님이시다.

그로부터 이틀후에 열린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오늘 우리 집에 있던 상비약품 들을 다 가지고나왔다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

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 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 회에 바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 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리처럼 회의참 가자들도두가 웃추치는 격정에 눈 굽을 적시였다.

방역대전의 나날 고열속에 심 히 앓으시면서도 인민을 지켜주시 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시었고 자신께서 쓰셔야 할 약까지 인민 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

정녕 그 약은 위대한 어버이사람 이 담긴 불사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 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은 온 나라에 공산주의미덕과 미풍 이 차넘치게 하고 전민항전, 전민 합체의 기세를 더욱 고조시킨 근 본원천으로 되였다.

자들은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치 료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보건일꾼들속에는 앓고있는 자 기 자식과 남편을 돌보기에 앞 서 말은 주민세대들과 환자들에 게 정성을 쏟아부은 의사, 간호 원들, 자체로 부축되는 의약품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준비하 여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 아준 의료일꾼들이 수없이 많다.

더욱 감동을 준것은 자기의 병 세를 잘 알면서도 인간생명의 수 호자로서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 고 방역전의 승리와 환자들의 완 치를 위해 생의 마지막기력까지 다 바친 방역, 보건일꾼들의 소 행이다.

사회를 감동시킨 미담과 미풍 의 주인공들속에는 악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 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철야전투 를 벌린 공장종업원들과 일꾼들 도 있고 가산을 아낌없이 털어내 여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 기숙사, 육아원, 예육원에 보내 준 사람들도 있으며 방자가 필요 한 세대, 곤란한 이웃들에게 사 심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도 있다.

자기보다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더구나 자기는 배를 곯 으면서도 성의를 다 바치는 이런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 로써는 인가를 헤아릴수 없는 사 회주의사회의 화목과 인간적연대 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방역전의 나날 사랑하는 인민들생각으로 참지도 쉬지 못 하고 불철주야로 방역전을 진 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 화국인민사에 애어린 현연적인 정과 신뢰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 뜨릴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되었고 방역위기를 타개해나갈수 있는 절 대적인 힘으로 되였다.

이렇듯 온 나라 인민이 령도자 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결같이 움직이고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 과 정이 국풍으로 되여있는 공화 국독유의 우월성과 위대한 류체 없는 방역위기를 타개하고 대승 을 안아왔다.

아버이사랑이 불사약이 되어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맛고보내신 고뇌의 낮 과 밤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국가최대방역위기사태의 발령 인 지침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리들을 돌아보시며 무너져내리 는 마을을 가깝스로 다잡으시던 5월의 그밤들, 약국들에 의약품 이 수요대로 공급되지 않아 줄을 서고 봄비는 주민들의 모습을 안

인민사수전에 나선 군대

수행하고 자기 입으로 막힌 숨길 을 열어준 소행, 공민권 식량을 서슴없이 털어내어 어려운 세대들 에 나누어준 소행 등은 인민들 크게 감동시키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군들의들중 에는 신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헌신 의 길을 멈추없이 걷다가 희생된 장병들도 있었다. 또 인민들의 사 박한 성의앞에서도 물과 공기만을 있으면 된다는 자세와 립장을 조 급도 흐트리지 않은 군의부문의 장병들이였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체현 한 평양시민들은 언제나 반겨맞 는 우리 인민군인민들의 모습만 보아도 병이 저절로 나올것 같다. 그 어떤 투정도 달게 받아주며 언제나 밝은 인상으로 우리를 대 해주시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 신 우리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 이라고 한결같이 격찬의 목소리 를 터치였으며 고마운 우리 군 대, 우리 아들, 우리 손자라는 부름이 인민들속에서 끝없이 울 리였다.

인민군대의 이러한 고결하고 헌 신적인 정신적품모는 아름다운 미 덕과 미풍을 전사회적으로 더욱 승화, 분출시킨 기록제로 되였다.

악성전염병을 물리친 덕과 정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에서는 헌 대과학기술의 힘뿐만 아니라 국 가의 모든 공민들의 일치단결과 서로의 협력이 보장되어야만 승리 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지난 3년 간의 보건위기가 깨우쳐주는 교 훈이다.

국가와 공민들사이, 사람들사 이 리해관계에서 불일치와 대립이 존재하며 남의 불행에 대하여 무 관심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 는것이 보편적인 자본주의제도에

있었겠는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 고 인민군인민들에게 성스러운 당 마크가 새겨진 파견장을 안겨주시 며 수도의 방역전장으로 급파해주 신 것을 경애하는 원수님.

몸소 가정에서 마련한 상비약 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 내주시며 온 나라가 기쁨도 아픔

있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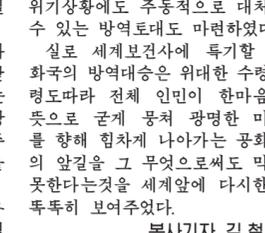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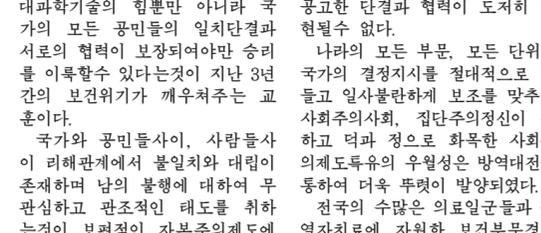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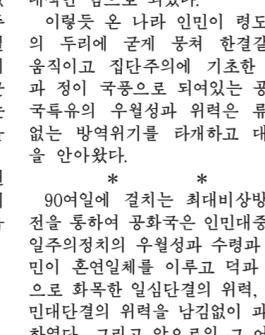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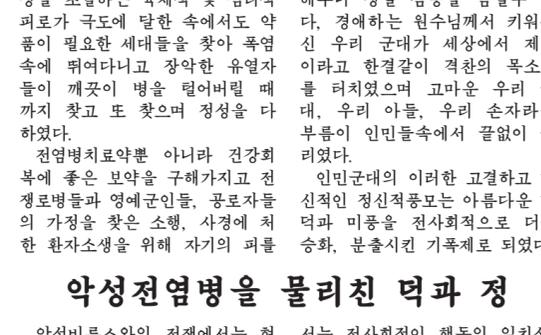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 고 인민군인민들에게 성스러운 당 마크가 새겨진 파견장을 안겨주시 며 수도의 방역전장으로 급파해주 신 것을 경애하는 원수님.

몸소 가정에서 마련한 상비약 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 내주시며 온 나라가 기쁨도 아픔

있었겠는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 고 인민군인민들에게 성스러운 당 마크가 새겨진 파견장을 안겨주시 며 수도의 방역전장으로 급파해주 신 것을 경애하는 원수님.

몸소 가정에서 마련한 상비약 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 내주시며 온 나라가 기쁨도 아픔



12월에 새겨진 위민헌신의 자욱

기쁨속에 갈마드신 아쉬움

지금으로부터 9년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물고기대품을 안아온 어드란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절일창고와 랑동저 장실들을 돌아보시며 물고기들이 가득차 있는것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고 하시면서 물고기배 배정으로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이 호뜻한 광 경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군인들이 배배리 먹는다느니 배고름 받으 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니 눈물을 흘리 시던 장군님생각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가슴떨어지는 기쁜 일, 좋은 일에 접하 실 때마다 늘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시 며 어버이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에 가슴저려하시는 그이였다.

이날만이 아니었다.

3년후 전례없는 물고기대품을 마련한 어드란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던 12월의 그날 에도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돛이 되는 날이라고, 못것던데 그리 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포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 기공급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뺏빈이 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잠은 물고기 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것만 같은 생각이 인민군대 수산기 지를 찾아왔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 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 더욱 갈마드신 아쉬움,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였다.

물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삭도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로해하시기 위하여 몸소 삭도를 타보신것은 마시평스키장을 찾으시 였던 주제102(2013)년 12월의 그날만이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12월이였다.

뱀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준공을 앞둔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공원, 스키중합봉사건물을 비롯하여 휴양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나서 일꾼들에게 스키장에 다시 가보라고 하시며 삭도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몇번 시운전이나 해본 삭도에 그이를 모실수 없다고 생각한 한 일꾼이 승용차를 타고 올라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없다고, 동무들이 시운전을 열면 하였다고 하여도 자신께서 한번 타고 올라가는것만 못하다고, 인민들은 자신께서 삭도를 타고 올라갔다는것 을 알게 되면 더 마음껏 놀수 있다고 하시 면서 몸소 삭도에도 오르시였다.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장점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가파로운 주로를 나는듯이 지켜내리 는 청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 을 지으시였다.

다시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도착구역으로 내려가 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스키장의 수용능력이 얼마 나 되는가도 알아보시고 스키2로와 3로와 합쳐 지는 곳에 안전그물을 설치하여 경계를 갈라줄데 대 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일꾼들의 가슴은 후덕게 젖어들었다. 인민을 위한 모든 일에 끝없는 요구성을 제기하시며 양덕은천문 화휴양지를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도록 이끌어주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가슴에 밀물처럼 차올라서였다.

본사기자

나의 아들은 지난 5월 최대비 상방역기간에 인민군대의들에 의 해 태어났다.

당시 형제산구역의 통홍약국에 진출한 인민군인민들은 새벽에 진 동이 온 나의 안해를 발견하고 즉시 약국에서 치료전투를 벌려 귀여운 육동자를 받아주었다.

화산군의들이 형제산통홍약국에 서 우리 애를 받아주었 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장홍 흥》이라고 지었다.

TV와 신문지상을 통 하여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온 나라 인민들은 악성비루스가 류입된 다 른 나라들에서는 매일같이 사람 들이 죽어가고있는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시신 인민군 대가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새 생 명이 태어났다고 격정을 금치 못 했하였다.

지난 9월 1일은 최대비상방역기 간에 태어난 우리 통홍이가 백날 이 되던 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한 인민군인민들에게 로고 고성을 터친 아기가서 우리 통홍 이의 백날은 한가정의 경사만이 아니였다.

그날 아침부터 이웃들과 온 아 빠트사람들, 친척들과 동무들이 축하의 마음을 안고 우리 집문을 두드렸다.

《통홍이가 우리 약국에서 첫 울음을 터치던 때가 엇그제 같 은데 벌써 백날이 되었구나요.》

《그녀서 참 잘났수다. 태어나 자마자 화산군의들의 전투복에 싸 여서인지 별로 튼튼합니다.》

... 우리 통홍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일주일일이 되는 지금도 우리 집으 로는 통홍이의 얼굴을 한번 보겠 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키워 달라는 부랴의 편지와 함께 지성 어린 보약재와 예기웃들도 보내

... 우리 통홍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일주일일이 되는 지금도 우리 집으 로는 통홍이의 얼굴을 한번 보겠 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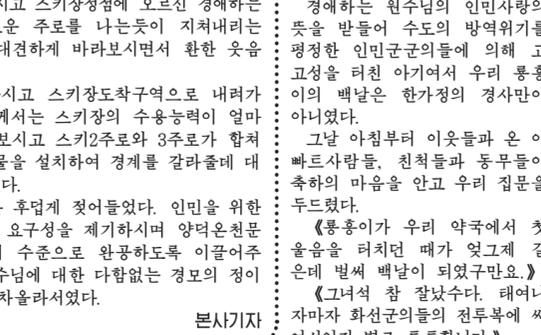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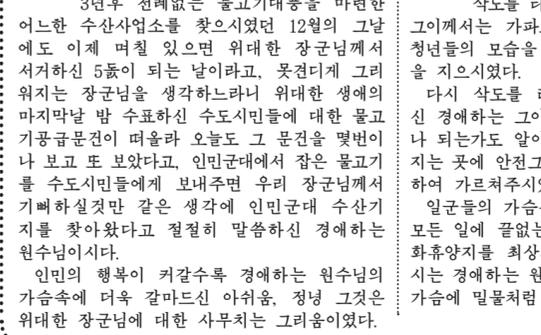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키워 달라는 부랴의 편지와 함께 지성 어린 보약재와 예기웃들도 보내

... 우리 통홍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일주일일이 되는 지금도 우리 집으 로는 통홍이의 얼굴을 한번 보겠 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키워 달라는 부랴의 편지와 함께 지성 어린 보약재와 예기웃들도 보내

... 우리 통홍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일주일일이 되는 지금도 우리 집으 로는 통홍이의 얼굴을 한번 보겠 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키워 달라는 부랴의 편지와 함께 지성 어린 보약재와 예기웃들도 보내



집집마다에 사회주의바다항기 넘친다

얼마전 인민군대 수산부대에서 잡은 물고기가 평양시민들에게 공급되었다.

송화거리를 비롯한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시의 곳곳에 자리잡은 봉사망들에서 물고기를 한 가득 받아안은 시민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리고 장군님의 그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험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곱을 적시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식탁에 물고기를 놓아주시기 위해 험한 길도 스스로 걸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보아주시는 문건도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줄때 대한 문건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넘치게 하여주시었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쌍을 초콜처럼 불태우신 어머니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육아원과

교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양로원은 물론 집집마다 물고기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고 인민들과 아이들은 그 물고기들을 받아안으며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온 나라의 집집마다에 넘치게 하신 그 날에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지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 속에 사는것같다고 하시며 그리고 기뻐하신 날도 새겨져있고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서는 자신께서 보내주신 고기배달 몸소 오르시어 매 고기배달 때마다 1000은 잡아야 한다.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락이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가슴뜨거운 날도 새겨져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모든 헌신의 날과 날들이 있어 이 땅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의 인민사랑을 담은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질게 풍기고있다.

황금해와 사회주의바다항기!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정과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오조음 막내딸의 방에서는 밤이 없어졌다.

자재에도 불이 켜져있고 이른새벽에도 한도양새이다.

앞으로 치러야 할 대학입학 시험준비를 위해서이다.

얼마전 나는 《출입금지》간판까지 큼직하게 붙여놓은 그대의 방에 작심먹고 들어섰다.

밤 한술 대충 넘기자마자 바람같이 제 방으로 사라져 버린 딸의 건강상태가 넘쳐되어 준비한 밤참을 건네기 위해서였다.

《엄마의 자적으로 막내가 그어놓은 금지선을 넘었으니 용서할수 있었지?》라고 나는 울물룩하게 치켜든 딸의 두눈에 정겨운 시선을 보내며 통으로 그의 신경을 늦추려주었다.

《네, 내친김에 쉬어가지요 뱀.》

벌루 훌훌해보이는 딸의 얼굴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다리를 권하는 나에게 갑자기 딸애가 《어머니, 난 고민에 빠져요.》라고 하는것이였다.

《?!》

(공부하기가 힘든게지?)

나의 속생각을 넘겨질기라도 한듯 《시험공부는 벌루 힘들지 않아요.》라는 단마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후 사춘기의 번민이 아닐까?)

이문을 가득 실은채 지켜보는 나에게 날아온 말은 예상밖이였다.

《어느 대학을 지망할것인가 고민거리예요. 과학으로 비약하는 새시대에 발을 맞추려면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가야 되겠고, 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릴적 꿈을 실현하자면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에 가야 할것같기도 하고...》

발랄한 성격에 항상 웃음만 날릴지라도 딸애의 《수신 깊은 고민》을 듣는 순간 나

의 근심거리는 연기처럼 날아 내려왔다.

참으로 행복한 세대이다. 배움의 꿈이 우주끝에 닿아 배움의 선택에 대한 행복한 고민속에 빠져있는 딸을 보니 만감이 교차되는 속이 알개 모르게 누러온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새 교복과 학용품들 한가득 받아안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꽃때문에 들어서며 끝없이 부풀었던 마음담아 첫 일기의

참한 현실을 통탄하며 남조선의 한 대학생이 쓴 《대학생과 빛》이라는 문헌에 실린 글이다.

몇 안되는 이 글자속에 남조선사회의 정모가 담겨있다. 배움은 곧 희망, 기쁨과 환희의 대명사이다.

옛글에 《배우고 수시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되어있다.

하나 배움이 아름다운 꿈이 아닌 빛으로, 희망 아닌 절망으로, 기쁨 아닌 고통으로 되어버린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이다.

그것은 교육을 보수적인 색채가 질게 정치화하려는 정책, 보통교육부문을 축소약화시키고 특정한 대학들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전체 교육분야를 후퇴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 《사교육》을 부추기고 《시장원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의 시장화정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각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내몰아 자살자들이 늘어나게 하고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든

방문기 로동자궁전에서 사는 긍지와 행복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로동자들이 사는 궁전, 로동자호텔로 새로 일떠선 때로부터 여덟해가 흘렀다. 그 날날 이곳 로동자합숙에서는 기쁨과 행복에 넘친 방직공처녀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얼마전 우리는 로동자합숙에서 복반을 생활을 누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과 어울려 독특한 건축형식을 뽐내며 솟아있는 로동자합숙 정문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곳 일군은 말하였다.

《있을수 없는 8년전 4월 새로 일떠선 우리 합숙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한

합숙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기 위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뜻을 그날로 우리의 사색을 이끌어갔다.

주제102(2013)년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실태를 알아보시기에 앞서 총업원들의 합숙과 살림집문제를 부러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몸소 공장합숙부지도 정해주시고 최단기간에 건설할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은정에 떠받들려 로동자들을 위한 멋있는 합숙이 일떠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로동자들에게 황홀한 새 궁전을 안겨주시고도 5.1절을 맞으며 로동자연회를 온 나라가 들썩하게 잘 차려주도



록 하신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인가.

취재길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왔다.

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갖추어진 호실들과 대중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문화후생시설들에서는 사회주의의 문명을 누려가는 방직공처녀들의 희열과 광만이 한껏 흘러넘치고있었다.

교내작업을 마친 합숙생들이 웃음꽃과 탁구경기를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 갖가지 주방도구며 집기류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로리실습장에서는 알차마를 두른 합숙생 처녀들이 로리제조를 익히느라 땀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랑의 보급자로 입사한 후 메일과 같이 이어지는 처녀로동자들의 즐거운 합숙생활의 하루하루였다.

우리와 만난 합숙생처녀들은 이처럼 회한한 로동자합숙에서 생활하는 남다른 자랑을 터놓았다. 한 합숙생처녀는 《어머니는 저더러 이젠 나이

도 있는데 시집을 가야 하지 않는가고 독학하곤 합니다. 시집을 가면 로동자궁전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한쌍 여기서 살고싶는데...》라고 울상이 되어 말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허나 시집을 가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무심하게만 들을수 없었다.

자기들이 살고있는 로동자들의 궁전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자기들의 보급자리에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합숙생 처녀들이 쉬이 떠나려 하지 않는것일까.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녀성친선, 녀성자별의 사회적조건이 만들어낸 남조선사회에서 기업들의 리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불행에 겪고 있는 녀성로동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갖은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남성로동자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로동재해와 각종 범죄

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불쌍한 남조선의 녀성로동자들.

로동력을 강그리 팔아도 인간으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운 남조선녀성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같은 로동자궁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로동자호텔들에 보급자리를 펴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녀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젖어들었다.

친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려가는 방직공처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절로 울려나왔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야말로 위대한 어머니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증견자,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호텔, 이 땅의 근로대중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의 상징이라고.

본사기자 흥복식



부모있는 《고아》!

너무도 모순적인 부름이 아닐수 없다.

부모를 잃고 의지가 지할때 없는 아이를 가리켜 고아라고 하는데 부모 있는 《고아》라니, 허나 있을수 없는 이 모순적인 부름이 실지 세상에 존재하고있다.

머칠것 나는 어느 출판물에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다.

글에는 남조선의 고아원들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살고있는가?

부모없는 고아들의 대명사이기도 한 슬픔과 고통을 어찌하여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당해야 하는가?

부모없는 고아들의 대명사이기도 한 슬픔과 고통을 어찌하여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당해야 하는가?

잃어버려가는 글줄에 비친 그 리유가 상상밖이어서 경악을 자아냈다.

보잘것없는 생계비로 엄청난 양육비를 감당해낼수 없어 한지로 밀려난 아이들, 메리고 짓밟고 굶기다 못해 구긴 종이장을 버리듯 내팽개친 아이들... 부모들이 퍼를 준 친자식마저 서슴없이 내버리는 처참한 현실은 인간생지옥 남조선의 진면모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권지혜

온갖 폐렴매체가 만연하고 돈과 재부가 없으면 살아가는것자체가 죽음보다 못한 남조선사회가 자식을 가진 부모들로 하여금 그런 소를 끄치는 죄악의 길로 떠민 것이다.

부모있는 《고아》라는 이 구슬픈 부름을 뉘어보느라니 나에게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화폭이 눈에 들어왔다.

동화속의 궁전같이 회한하게 솟아오른 육아원과 교육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곳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 배움의 글소리...

비록 낱아키워준 친부모는 없어도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고아의 얼굴에서 마를새 없는 눈물도, 주눅이나 눈치, 비에도 전혀 찾아볼수 없다.

자교로 고아만큼 불쌍하고 처량한 아이들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행복에 웃고 기쁨과 광만이 넘쳐 한쌍 구긴 살없이 자라는 우리 원아들의 웃음과 노래, 행복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지금도 나의 귀에 쟁쟁히 들려온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굽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며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찾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음성이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넓은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친어머니정을 부여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많이 사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자신께서는 자식부자라고 하시며 원아들을 위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그의 크나큰 사랑과 정은 친부모도 주지 못할 한량없는 사랑과 정이다.

그 사랑과 정이 원아들이 매일 마주앉는 풍성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 철따라 받아안은 고운 옷과

신발, 《해바라기》학용품과 그림책,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따스하게 스며 있다.

활기찬 원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자아냈으면 평양육아원, 육아원을 돌아본 한 외국인이 내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고싶다고 자기의 경험을 토로하였는가.

《우릴 부러워해요.》

아이들의 보급자리에 새겨져있는 이 글발에도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친어머니로 모시고 나는 이 나라 원아들의 남다른 행복과 긍지가 함축되어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존재할수없고, 지어낼수없는 꿈같은 사랑의 세계가 이 땅의 곳곳에 펼쳐져 있다.

부모있는 《고아》라는 모순적부름이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강그리 말살하는 색교병은 남조선사회의 부패상과 사회악을 낱알이 드러내고있다.

《우릴 부러워해요.》라는 이 말에는 친부모도 줄수 없는 하늘같은 사랑과 정으로 원아들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을 뜻이 보살펴주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우월성과 밝은 미래가 그대로 비껴있다.

나에게 친부모의 사랑을 너무도 어린 나이에 잃고 《나에게 정이 없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라고 한탄과 서러움을 토로하고있는 남조선아이들의 처량한 목소리와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노래부르며 행복에 겨워하는 우리 원아들의 웃음소리가 엇갈려 들려온다.

나는 생각했다.

부모가 있어도 고아나 다름없는 아이들이 있는 비인간적사회의 암울한 전도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부모를 잃어도 부모없는 슬픔을 모르고 사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아름답고 휘황한 미래에 대하여...

김혜정

투고 배움의 《고민》

를 쓰던 일, 7.15최우등상의 영예를 지니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라를 활짝 꽃피우던 나날,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30대에 박사, 부교수가 되어 교육자로서의 긍지높은 삶을 누려온 순간들...

나쁜이 아니다.

남편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재능있는 발명가, 만아들은 평양건축대학 졸업을 앞둔 미래의 설계가이다.

온 가족이 이처럼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정말이지 사회주의 내조국의 고마운 혜택을 과연 우리 가족이 다 알고 누려온 것이던가.

은혜로운 품속에서 누리는 배움의 권리를 오히려 옹당하게 여기며 어느 대학에 갈것인지 고민하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니 얼마전 교수준비를 하던중 자료실에서 보았던 남조선사회의 교육실태가 떠올랐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배움이 곧 빛으로 되는 비

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배척해나서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곳에 어찌 새세대들의 희망과 꿈, 미래가 있겠는가.

하나 우리 공화국은 어떠한가.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에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료》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무료로 공부하며 푸른 꿈을 키우고있고 재능과 희망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까지 받는다.

은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교육과 학용품이 보장되고있으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분교가 세워지고 통학버스와 통학렬차, 통학배가 운영되고있다.

나라마다 교육제도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화국의 교육제

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배척해나서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곳에 어찌 새세대들의 희망과 꿈, 미래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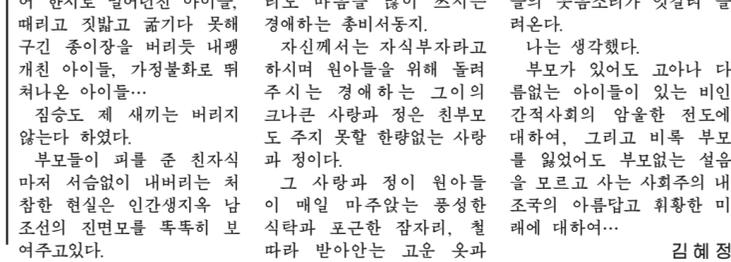
하나 우리 공화국은 어떠한가.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에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료》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무료로 공부하며 푸른 꿈을 키우고있고 재능과 희망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까지 받는다.

은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교육과 학용품이 보장되고있으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분교가 세워지고 통학버스와 통학렬차, 통학배가 운영되고있다.

나라마다 교육제도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화국의 교육제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힘을 부여하신것이 종교인들과의 연합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종교계인사들을 자주 만나 시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선로동당의 종교정책과 통일전선정책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그들이 애국적인 종교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주체34(1945)년 10월 18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맥에서 벌써 1시간가량이 자주 창박을 내다보시며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고계셨다. 그이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은 창덕학교시절 스승인 강랑옥선생이였다. 강랑옥선생은 창덕학교, 평양숭실중학교, 평양숭실전문학교, 평양시립고등학교 등에서 공부를 하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창덕학교와 남포사립독실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과 그리스도교인들 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한 애국적인 목사였다.

잠시후 강랑옥선생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급히 걸어나오시었다.

《강선생!》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옛 스승을 뜨겁게 포옹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선생은 격정으로 하여 인사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반갑습니다. 몇해만입니까? 그간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간 왜놈들의 학정밑에서 많은 고생을 했겠다고 다시금 위로하시었다.

《나야 무슨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풍찬로숙하시며 나라의 해방을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셨는데 나는 제 집을 쓰고 지냈으니 장군님을 뵈을 면목이 없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선생을 다시 만나니 지난 창덕학교시절이 감회깊게 되실아 납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한생에 잊을수 없었던 그 날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는듯 깊은 회억속에 잠겨있던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드리었다.

《이렇게 비우고보니 라향에 묻힌 장군님의 부모님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먼 하늘가를 점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이 이 땅에 흘린 피의 대가로 우리 조국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는 일본놈들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어 인민의 세상이 되었으니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는 종교인들의 애국적관심을 잘 알고있다. 그들중에는 천도교도정인 박인준도 있었다. 그는 종교인이지만 많은 천도교 청년들을 교양하여 항일유격대에 보냈으며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

박인준도정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값높은 평가는 강랑옥선생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장군님, 종교인에 대한 장군님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정말 복받쳐오는 감동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인지 해방위업에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게만 생각됩니다.》

심한 자책이 어려웠는 그의 솔직한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선생이 지난날 그리스도교를 믿는것은 문제였일이 없으며 해방된 조국에서 앞으로의 새 출발이 보다 중요하다고 다정히 이르시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대로 이 강랑옥은 해방된 조국을 위해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의 두볼로는 고마움의 눈물이 끓어 흐르고 흘러내렸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영이부인 김영하가 새 출발이

《인간 대 배륵》, 《인간 대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웨치며, 펼쳐나선 각계각층의

《이제는 윤석열이 친위정권에서 정권교체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윤석열이 친위정권에서 정권교체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윤석열이 친위정권에서 정권교체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총련의 자랑 - 금강산가극단

《높은 예술성과 함께 출연자들의 정열까지 안겨오는 공연이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공연을 볼 때마다 내가 조선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조선의 마음, 민족의 넋에 접하였다.》...

여 신비하게 생각할것이 없다고, 마음먹고 해보노라던 담도 커지고 기량도 높아진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아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 총련예술인들에 대한 하느님같은 믿음과 사랑을 기적을 낳아 마침내 한달만에 총련예술인들은 전집받은 가극을 무대에 올릴수 있게 되었다.

주체63(1974)년 6월 27일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어 총련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민족해해시며 일본으로 돌아가면 금강산가극단을 꾸리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여 총련과 《인민》을 통해 일본으로 오는 동포들과 일본인들에게도 보여 줄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었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조국에 와서 새 작품을 배워가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그 해 8월 29일 제일조선중앙에 송출된 《금강산가극단》으로 명명하는 모임을 성대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금강산가극단은 공화국창건 26돐을 맞으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공연을 시작하여 불과 3일동안에만도 총련과 《인민》 산하 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들,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등 1만 1000여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유산인 금강산가극단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가극단의 예술창조활동을 끊임없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강산가극단이 창립 40돐을 맞으며 광범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수령정승, 조국 사랑의 우렁찬 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도록 하시었다. 또한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에서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극단들은 수령님들의 손길 아래 자라난 주체적해외민족 예술부대단체 동포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넋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님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고 예술활동의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예술부대단체의 손길 아래 자라난 주체적해외민족 예술단체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한 일 혁

인권범죄자들의 판에 박은 다령

한해가 저무는 설날까지도 저 남조선땅에서는 친하기 그지없는 《북인권》라령이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다.

《공방부》, 《법통부》라는 이름에서 벗어나려는 공방부를 축내는 속물들이 제 나름의 일판을 벌려놓는다는것이 《북인권》 나발일이다.

지난 12월 9일 《통일부》 것들은 윤석열역도집권이후 두번째로 되는 《북인권정책 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는데 이어 14일에는 《북인권국제 대화》라는 토론회를 가졌는 가 하면 19일에는 또다시 주체전도 《북인권》에 대한 《정의》와 기본론쟁점을 주제로 한 《북인권전문가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어중이떠중이들이 한구들 모여 그 무슨 《인권사도》 흉내를 내는 꼴도 가관이지만 피이하고 비리성적이며 소음공해와도 같은 객적은 《인권》라령을 줄곧 불러대는 행태는 그야말로 달살이 돌을 지경이다.

이뿐이 아니다. 《북인권국제협력대사》라고 하는 녀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도쿄와 서울에서 진행된 유엔(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과의 연담, 일본판방장관과의 연담, 《북인권국제 대화》에 머리통을 들이밀고 《북인권침해》와 《군사적도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니, 《북인권문제》를 해결하자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확보가 필요하다는니 하며 악정을 쏟아내었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들은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돌격대로 씌먹으려고 집요하게 설쳐대는가 하면 지난 6년동안 도주자쓰레기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북인권보고서》를 다음해초에 공개하겠다고 뇌까리고있다.

역시 지난 시기 《북인권》북통을 두드려대던 전입자들도 아연할 정도로 《북인권》소동에 병적인 집착을 가지

고있는 윤석열역도의 비린 곡조에 맞추어 뿜어대는 인권범죄자들의 합창곡이다.

런이 악장을 번쳐대며 칩마르게 《북인권》타령을 뽐어대는 광대를 보느라니 과연 그것들이 눈달리고 귀달린 사람인 흉내를 보느라니 과연 그것들이 눈달리고 귀달린 사람인 흉내를 보느라니 과연 그것들이 눈달리고 귀달린 사람인 흉내를 보느라니

세인이 다 인정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상과 이 땅에서 울리는 인민들의 북진 삶의 찬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말그대로 병신이고 보고 들으면서도 예세 눈감고 귀를 막는다면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기를 포기한 추태가 아니겠는가.

하키야 온 남조선땅을 인권유린의 표본, 인권무덤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불모지에서 인간을 제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해주지 않는것이 더 현실적일것이다.

올해에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는 각종 재해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당했고 소비재물가상승률이 20여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생위기가 더욱 악화되면 서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에 항의하는 로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위가 연이 번이지고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는 고조를 이루었다.

더우기 이해가 저물도록 역시 지난 시기 《북인권》북통을 두드려대던 전입자들도 아연할 정도로 《북인권》소동에 병적인 집착을 가지

되는 않는다.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들이 아무리 불을 짚어고 고리타분한 《북인권》타령의 새라 새로운 곡을 지어내고 불리맨도 해도 저들의 추악한 반인륜적악정을 가리킬수 없을 뿐더러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눈감지 않을 수 없다.

정치미숙아, 속물인 윤석열이라는 존재자체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세인이 윤석열패당의 지정곡인 《북인권》타령을 같이 따라부르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다시금 명백히 해두건대 그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 망측한 《북인권》타령을 목이 쉬게 불러달것이 아니라 《남조선인권》타령을 지정곡으로 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제가 관 무덤에 제발로 걸어들어가면서 장송곡을 지정곡으로 부르지 않으려거든 입투쟁을 단는것이 좋을것이다.

김 대 통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한 해외동포가 찾은 인생전환의 길 (5)

림창영선생은 1995년 11월 법민련 해외본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선생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직을 수락했다.

《나를 필요로 한다면 조금이나마 보태겠다.》

통일애국은 말이 아니라 헌신과 열정, 피와 땀방울이라고 선생은 생각했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림창영선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우러러뵈고하며 겨레를 위한 애국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1996년 제야의 종소리가 울렸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왔다.

첫아침 뉴욕에 살고있는 림창영선생의 집에는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있었다.

친지들이 이웃들을 둘러보는 선생의 눈은 총혈졌었다.

《새해 1996년 첫아침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잔을 드려주세요.》

부인 리보배녀성이 조국방문의 기념으로 고이 간직해온 평양소주를 꺼내었다.

림창영선생이 첫 잔을 정히 부어 상에 놓았다.

《김일성주석님!이시여! ...겨쳐버린 민족의 가슴에 생명의 불꽃을 지펴주시

려 민족의 완전자주를 위해 당신께서 견고결으신 먼길을 돌이켜보는 겨레의 눈시울은 왜 이리도 뜨거운에 젖는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오르신 가파로운 돌담고개길과 당신께서 걷신 저리고 시린 산등재길을 다 당신께서 걸으신 끝없는 황야같은 말그대로 민족창업의 줄기찬 력사였나이다.

아, 주석님, 주석님을 생각하면...》

인생의 자서전을 펜으로 가 아니라 수많은 곡절과 편답, 칼끝이라도 뎡고서는 굳센 지조로 페지마타를 수놓은 《애메리카지적 민주화 운동가 제1호》라고 불리우는 림창영선생의 눈금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추모하는 눈물이 생처럼 솟아나왔다.

선생은 민족의 하늘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존안을 그려 보았다.

언제인가 공산주의도 민족주의도 다 조국을 위해서 필요하면 생명이 미국의 정계와 학계, 종교계, 언론계인사들과 친교관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자신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통일의 지지대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것은 애국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크나큰 믿음과 고구

의 말씀을 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여러 차례 고급양복과 양단치마저고리감, 산삼과 특용을 비롯한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이시었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셨다...

선생은 너무도 깜짝 놀라 온몸이 전기에라도 감전된듯했다.

선생은 비통하고 절통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조의방문하고 조의를 표한 다음 조의록에 글을 남기었다.

선생은 이날에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오목도록 우려며 한평생 이 겨레를 위해 너무도 많은 고생을 겪으시고 너무도 많은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깊이 추모하였다.

림창영선생은 갈수록 로한과 병마가 육신을 파괴하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유지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그대로부터 2년간을 낫듯이 버티어왔던것이다.

그리고 1996년 새해의 아침 파란많은 자기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고있었다. ...

조국에서 다진 값높은 맹세를 지켜 통일성업에 헌신하던 림창영선생은 병환끝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알파메이즈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은 1996년 1월 25일이였다.

이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로들이 떠나가는 것이 못내 가슴아프다고 하시면서 림선생을 가족장만으로는 안된다고, 조국에서 추도회를 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회환까지 보내주시었다.

추도회장에서 사람과 민심의 향기 그윽히 풍기는 꽃술너머에서 림창영선생의 초상이 조용히 미소를 띠우고있었다.

물이 낮은 곳을 따라 흘러내리는것은 지구중력에 의한 자연의 법칙이고 인민의 위의를 따라 참인생의 길정에 오르는것은 사랑과 믿음의 인력에 의한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사랑과 인덕의 품에 안겨 어지럽던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을 위한 의로운 길을 강직하게 걸은 림창영선생의 삶은 그것을 생동한 화곡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명성

《윤석열 역시 박근혜처럼 탄핵되어야 한다》

—서울과 일본에서 윤석열퇴진 대규모초불투쟁 진행—

얼마전 남조선에서 《초불승리전행동》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건희퇴진-윤석열퇴진 제19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서울의 날씨가 평하 17°C로 떨어진 강추위속에서도 《집중초불대행진에 빠질수 없다.》, 《작은 힘이라도 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경기도, 남조선강원도,

충청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달려온 10만여명의 군중이 《김건희퇴진-윤석열퇴진 제19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에 참가하였다.

이날 초불투쟁참가자들은 15시부터 서울시청과 승례문 주변에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전집회인 행진을 진행하고 16시 30분부

터 본집회를 여는 등 강추위속에서도 《윤석열은 민족도 가차없이 저버린 배운다.》, 《(선제타격), (북은 주적)》이라는 당방을 제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였다.》, 《민족적자존심을 버리고 로골적인 친미, 친일행위를 일삼고있다.》, 《초보적 (대통령)자격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은 백배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국민의 힘)은 해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면서 새해에도 《윤석열퇴진초불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일본에 있는 해외동포체인 《도쿄민주실천련대》도 《윤석열집권후 너

무나 많은것이 변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되고있는 윤석열퇴진초불투쟁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하면서 지난 17일 《윤석열퇴진초불집회》를 벌리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윤석열 역시 박근혜처럼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에 모든 해외동포들이 적극 펼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도 남조선과 해외에서 반윤석열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은 《김철》독재와 반인민적악정, 대결과 사대매국을 일삼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며 우리 민족에게 제앙과 화란만을 불러오는 반역(회진)을 반드시 심판하려는 민심의 의지의 과시로 된다.

본사기자



친일매국노들의 쓸개빠진 행위

사대와 대결에 환장이 되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법이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격능력》보유를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전략문서를 개정하는 놀음을 벌인 일 본것들에 대해 《일본도 자국방위를 위해 고민하였을 것이다.》느니, 《반격능력보유문제는 〈한〉미일안보협력의 틀에서 논의가능하다.》느니 하며 비호두둔한 것도 그러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6일 본것들은 립시각로회의를 열고 국가안보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증진계획 등 3개 국가안보전략문서들을 전면개정하는 놀음을 벌렸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문서들에 필요한 경우 《적국》의 미사일발사 기지를 타격한다는 《반격능력》보유와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의 2배인 국내총생산의 2%수준까지 증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사실상 이것은 《반격》이라는 미명하에 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에 임의의 나라나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침략한 수많은 나라, 유엔헌장에서 적국의 명명도 받지 못한 전범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전후 70여년이 되는 오늘 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나라이다. 오히려 저들의 과거죄악을 미화 분식하면서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고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여온 위험천만한 나라이다.

이런 섬나라가 지금껏 코방해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반격》이라는 미명하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고 로골적으로 재침의 길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속에 복수의 칼을 품고 체계적으로 힘을 키워온 섬나라가 이제 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는 경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임의의 나라와 지역을 선제공격할 기도를 드러냈다.》, 《일본이 5년내에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 필적한다.》고 하면서

불안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일본것들은 국가안보 전략문서들을 개정하면서 그 무슨 《북미싸이발사 등 안보환경의 급변》에 대해 떠들었는가 하면 그 누구와의 《사전협의나 승인도 필요없다.》고 함으로써 임의의 나라나 지역을 제마음대로 선제공격할 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것들이 추구하는 《반격》의 첫번째 대상이 다른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그 무슨 《일본의 우려》나, 《안보협력의 틀》이니 하며 일 본것들을 비호두둔하는 것은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쓸개빠진 것이 아닐수 없다.

들어켜보면 역적패당은 집권초기에 벌써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떠들며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에서 일본것들의 비위를 맞추었다가 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운운하고 지어 섬나라것들과 조선동맹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 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역적패당의 친일사태행위에 기고만장해진 일본것들이 이제는

아무 꺼리낌없이 조선반도재침야 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것들이 조선반도에 재침의 발을 들여놓는 경우 남조선부터 라고 알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입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망동은 그야말로 재순으로 제 집안에 강도를 끌어들이는 머저리짓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역적패당의 망동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대일저자세때문에 일본이 조선반도 침략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을 편드는 현 당국은 재침신이 아니다.》, 《친일골공의교와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을 당장 중단하라.》는 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역사는 사대매국과 대결에 환장한 역적들이 임의의 길에 비참한 종말로 끝나고 있었다는 것을 한두번만 보여 주지 않았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국도의 친일사태대국행위에 매달리는 역적패당이 갈 곳이란 역사의 무덤밖에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무항하는 파쇼독재망령

최근 윤석열역도가 《검찰》과 《경찰》, 《정보원》을 장악하는데 필사적으로 달려붙고 있는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파쇼독재체제를 수립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출신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실》에 《검찰》출신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시행령》을 발표하여 《검찰》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역도의 집권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하였던 장을 《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하며 《정보원》에 《감찰》을 내오고 내부감찰을 통해 이전 《정권》시기에 등용되었던 20여명의 국장

이처럼 윤석열역도가 《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하는데 필사적으로 달려붙고 있는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파쇼독재체제를 수립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출신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실》에 《검찰》출신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시행령》을 발표하여 《검찰》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역도의 집권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하였던 장을 《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하며 《정보원》에 《감찰》을 내오고 내부감찰을 통해 이전 《정권》시기에 등용되었던 20여명의 국장

이처럼 윤석열역도가 《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하는데 필사적으로 달려붙고 있는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파쇼독재체제를 수립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출신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실》에 《검찰》출신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시행령》을 발표하여 《검찰》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역도의 집권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하였던 장을 《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하며 《정보원》에 《감찰》을 내오고 내부감찰을 통해 이전 《정권》시기에 등용되었던 20여명의 국장

이처럼 윤석열역도가 《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하는데 필사적으로 달려붙고 있는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파쇼독재체제를 수립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출신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실》에 《검찰》출신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시행령》을 발표하여 《검찰》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역도의 집권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하였던 장을 《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하며 《정보원》에 《감찰》을 내오고 내부감찰을 통해 이전 《정권》시기에 등용되었던 20여명의 국장

민생을 해치는 오늘의 《한정승》

민간에 널리 알려진 역사가 이야기들중에는 《한정승의 벼농사》라는 야담도 있다.

전란을 피해 시골에 온 한정승이 벼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는 일자무식하면서도 《무식한 농부》들의 일손세를 비롯하여 실한 모판 끌라 쫓아라, 연안한건 뽑아버려라 하며 뽀내 여뽀내 하인들을 달구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가을에 가서 보니 들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무지와 무능으로 남조선정체를 파산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역도가 오늘의 《한정승》이 아닌가 싶다.

경제분위하한 윤석열역도가 집권하자마자 버려놓은 것은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조치 완화였다.

《기업주도성장》의 간판 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고 《주 52시간근로제》를 《주 69시간근로제》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수 많은 규제조치를 뜯어고치도록 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기업법인세 등 각종 세금관련법조항들을 대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개

정하면서 《부자감세》조치를 추진하였다.

반면에 절대다수 서민들과 소상공업자들에게는 어떻게 놀아났는가.

역도는 서민들과 소상공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들쭉시키고 선거때 들고나온 《민생경제공약》들을 후지못으로 만든 데 이어 상업노동자들에 대한 《의무휴식제》와 화물운송업체의 《안전운임제》를 아예 없애치우려고 달려들었다.

하여 그들을 빚더미에 올려 앉게 하였고 《비정규직》로동자수를 이전에 비해 15만명이상으로 늘여놓았다.

집이 없거나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940여만명에 달하고 자살자수가 2019년에 비해 3배로 증가한 것도 윤석열역도의 친재벌정권, 반민민적악정이 빚어낸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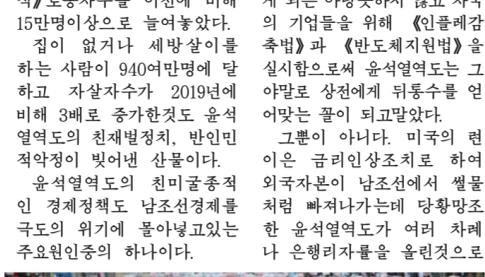
윤석열역도의 친미골공적 경제정책도 남조선경제를 국도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주요원인중의 하나이다.

대외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물가상승, 리자를상승, 환율상승으로 민생은 도란에 빠져 허우적치는 데도 미국주도의 《칠4동맹》과 《한미일경제안보대화》가입을 비롯하여 친미일변도정책에만 몰두하였다.

그것은 주변나라들로부터의 경제적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으며 그로 하여 수출주도와 전략물자수입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던 남조선기업들은 질식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에 그토록 충성다하였지만 상전은 남조선경제가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 《인플레이션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을 실시함으로써 윤석열역도는 그야말로 상전에게 뒤투수를 얻어맞는 꼴이 되고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의 립이언은 금리인상조치로 하여 외국자본이 남조선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당황망조한 윤석열역도가 여러 차례나 은행리자율을 올린 것으로



남조선의 《국민의힘》 것들이 이해가 다 저무는 오늘까지도 당권을 놓고 서로 물고뜯는 싸움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자가 어느한 자리에서 현재 당대표선거에 나서려는 몇몇 대상들의 이름을 령가하며 《상차지 않은 인물들》이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수도권》 출신의 인물을 새 당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말속에 말이 있다고 다음기 당대표로서는 친윤석열과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로골적인 이 암시에 《국민의힘》 내부부는 또다시 러진 별집처럼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자의 발언이 윤석열역도와 의 먹자판을 벌린 후에 나온 것으로 하여 너무나도 신경이 곤두섰던 것이다.

까막하다가는 당권경쟁에서 밀릴수 있다고 라산한 전 《국민의 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는 저마끔 자기들 《윤석열과 만찬을 한 유일한 당대표후보》, 《(대통령) 선거후보단일화를 실현하

고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령임한 윤석열(정부)의 보충인》으로 광고하면서 자기들이 《적임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이에 뒤질새라 비윤석열과 인물들은 《사람에게 총정하지 않는 것이 신조라고 하던 그 사람에게 총정하지 못해 란리》냐고 조롱하면서 《수도권》 지역과 청년층에서 《인기》있는 저들이 《적합한 후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도의 심복인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출마설까지 나돌고 특정인물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박까지 일어나면서 당대표자리를 노린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은 한층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것들은 당대표출마설을 놓고도 한치도 양보없는 개싸움질을 벌이고 있다.

친윤석열과들은 지금의 당대표출마설적으로는 대중적인기가 없는 저들이 당권

을 장악할수 없다고 라산한 데 따라 당원투표결과를 70%, 일반주인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하게 되어있는 당대표선출규정을 당원투표 비율을 100% 하기로 당규약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리고 있다.

반면에 비윤석열과들은 친 윤석열과들이 마음대로 당대표선출규정을 바꾸려 하는 데

《들》을 꺼내들며 민심기만 놀음을 벌려놓고 있다.

또한 당소속의원들과 《국민의힘》에 이름을 올린자들을 어떻게 하나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각종 모임을 내오거나 확대하면서 세력자놀음을 벌려놓고 있다.

권력과 자파세력확장을 위한 《국민의힘》 것들의 이러한 개싸움질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여당정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정세행위는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당권》뿐이다. 전당대회를 했다가 《윤석열당》을 만들려는 세력과 그에 반발하는 세력의 싸움판이 될 것이다. 더러운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망하는 집안의 싸움이 잦다고 민생이 어떻게 되든 정쟁에만 미쳐들아가는 정치정세, 정치간상배의 무리인 《국민의힘》에는 락조가 짙게 끼여 있다.

《국민의힘》에서 장승폭이 울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하여 기업투자가 줄고 채무 위기가 더 커지게 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역도는 자기의 반민민적악당과 친미일변도정책, 무지무능으로 인한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제경제위기》로 변명하고 이전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보안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등 《정보원》의 대내정보수집 권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경찰》을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 《경찰》고 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국》을 새로 내오고 이를 반대하신 대상들을 《쿠데타》, 《내란 음모》세력으로 몰아 제압하고 있다.

특히 《경찰혁신》을 내들고 지휘, 보고체계재정비, 인사개편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경찰》내부에 남아있는 이전 《정권》의 잔재를 완전

하여 기업투자가 줄고 채무 위기가 더 커지게 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역도는 자기의 반민민적악당과 친미일변도정책, 무지무능으로 인한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제경제위기》로 변명하고 이전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보안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등 《정보원》의 대내정보수집 권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경찰》을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 《경찰》고 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국》을 새로 내오고 이를 반대하신 대상들을 《쿠데타》, 《내란 음모》세력으로 몰아 제압하고 있다.

특히 《경찰혁신》을 내들고 지휘, 보고체계재정비, 인사개편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경찰》내부에 남아있는 이전 《정권》의 잔재를 완전

하여 기업투자가 줄고 채무 위기가 더 커지게 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역도는 자기의 반민민적악당과 친미일변도정책, 무지무능으로 인한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제경제위기》로 변명하고 이전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보안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등 《정보원》의 대내정보수집 권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경찰》을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 《경찰》고 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국》을 새로 내오고 이를 반대하신 대상들을 《쿠데타》, 《내란 음모》세력으로 몰아 제압하고 있다.

특히 《경찰혁신》을 내들고 지휘, 보고체계재정비, 인사개편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경찰》내부에 남아있는 이전 《정권》의 잔재를 완전

하여 기업투자가 줄고 채무 위기가 더 커지게 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역도는 자기의 반민민적악당과 친미일변도정책, 무지무능으로 인한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제경제위기》로 변명하고 이전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보안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등 《정보원》의 대내정보수집 권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경찰》을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 《경찰》고 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국》을 새로 내오고 이를 반대하신 대상들을 《쿠데타》, 《내란 음모》세력으로 몰아 제압하고 있다.

특히 《경찰혁신》을 내들고 지휘, 보고체계재정비, 인사개편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경찰》내부에 남아있는 이전 《정권》의 잔재를 완전



망하는 집안의 개싸움질

《인기》있는 저들이 《적합한 후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도의 심복인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출마설까지 나돌고 특정인물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박까지 일어나면서 당대표자리를 노린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은 한층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것들은 당대표출마설을 놓고도 한치도 양보없는 개싸움질을 벌이고 있다.

친윤석열과들은 지금의 당대표출마설적으로는 대중적인기가 없는 저들이 당권

을 장악할수 없다고 라산한 데 따라 당원투표결과를 70%, 일반주인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하게 되어있는 당대표선출규정을 당원투표 비율을 100% 하기로 당규약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리고 있다.

반면에 비윤석열과들은 친 윤석열과들이 마음대로 당대표선출규정을 바꾸려 하는 데

《들》을 꺼내들며 민심기만 놀음을 벌려놓고 있다.

또한 당소속의원들과 《국민의힘》에 이름을 올린자들을 어떻게 하나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각종 모임을 내오거나 확대하면서 세력자놀음을 벌려놓고 있다.

권력과 자파세력확장을 위한 《국민의힘》 것들의 이러한 개싸움질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여당정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정세행위는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당권》뿐이다. 전당대회를 했다가 《윤석열당》을 만들려는 세력과 그에 반발하는 세력의 싸움판이 될 것이다. 더러운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망하는 집안의 싸움이 잦다고 민생이 어떻게 되든 정쟁에만 미쳐들아가는 정치정세, 정치간상배의 무리인 《국민의힘》에는 락조가 짙게 끼여 있다.

《국민의힘》에서 장승폭이 울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을 장악할수 없다고 라산한 데 따라 당원투표결과를 70%, 일반주인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하게 되어있는 당대표선출규정을 당원투표 비율을 100% 하기로 당규약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리고 있다.

반면에 비윤석열과들은 친 윤석열과들이 마음대로 당대표선출규정을 바꾸려 하는 데

《들》을 꺼내들며 민심기만 놀음을 벌려놓고 있다.

또한 당소속의원들과 《국민의힘》에 이름을 올린자들을 어떻게 하나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각종 모임을 내오거나 확대하면서 세력자놀음을 벌려놓고 있다.

권력과 자파세력확장을 위한 《국민의힘》 것들의 이러한 개싸움질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여당정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정세행위는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당권》뿐이다. 전당대회를 했다가 《윤석열당》을 만들려는 세력과 그에 반발하는 세력의 싸움판이 될 것이다. 더러운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망하는 집안의 싸움이 잦다고 민생이 어떻게 되든 정쟁에만 미쳐들아가는 정치정세, 정치간상배의 무리인 《국민의힘》에는 락조가 짙게 끼여 있다.

《국민의힘》에서 장승폭이 울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진짜 공정과 상식이란...

최근 《소통의 창구》라던 출근길기자회견을 제정당 없애버린 윤석열역도의 의중을 알고싶어 어느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다.

기자: 어떤 말들이 오셨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까?

역도: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역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며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일단 목표를 세운 것은 누가 뭐라 하든 끝까지 내 미는 것이요.

기자: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소통과 협치》라는 것이 불공정과 불상식, 불통과 야당탄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설명해줄수 있었습니까?

역도: 허바닥이 거짓이라고 입가진 것들이 마구 주절댄 모양인데 귀에 담지 마시오. 내가 구상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어떤 것인가. 레를 들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에 맞게 대우해주고 손발밖에 없는 자들은 그 처지에 상응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고 또 있는 자만이 행운을 누릴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 이거야 세상리치가 아닌가. 야당것들이 내가 검사출신들만을 견사한다고 《끼리끼리인사》이니, 《동아리정권》이니 나불거리는 데 뭐 저들은 안그랬다가 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옆에 끼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 자교로 정치의 상식이 아니겠소?

《소통과 협치》에 대해 말한다면 나의 주장에 《옳다!》고 하는 것이 《소통》이고 내가 한마디 지시를 주면 《알았습다!》 하는 것이 《협치》이다 이거요.

기자: 당신의 특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역도: 기본적으로는 한가지요. 내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령대 조상들도 그렇게 했거든. 기자: 당신의 정치리념은 《자유민주주의》이지요? 가장 애용하는 단어가 《자유》인 것일텐데 어떤 연설에

서는 수십번씩 나오더군요. 그런데 학생만화공모전에서 당선된 《윤석열차》만화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더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요?

역도: 《자유》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거요.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했겠소. 아마 그뒤에는 《주사파》에 속한 부모나 교원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이전 《보안법》대상이라고 할수 있지.

기자: 그러면 《MBC》언론사가 당

게 아닌가.》라고 했던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후 마리 안투와네트가 한 말이 명답이요.

기자: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기중심의 《자유》, 극소수에 달하는 특권층만을 위한 《자유》가 아닌니까. 그러면 《자유》라고 할수 있을까요?

역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이런 건 것거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유》이고 나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자들을 억척, 구속하는 《자유》를 골로루 나누어가겠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자유민주주의》인 거요.

기자: 《?》

보셨는가요.

윤석열역도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나 《소통과 협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악으로 무지무능한 역도에게서 어떤 《공정》도 《상식》도 존재할수 없고 《검찰》독재를 망상하는 파쇼망에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부자간에서 털나기를 바라는 것이니 다름없습다.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권력부지를 위한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회대의 악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무지무능, 외세의 삽살개, 사냥개가 되어 남조선에 《안보불안》만 들쭉우는 정쟁대결판,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성도망칩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싸움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대 매물》, 《인간 대 악마》의 싸움이 라고.

—윤석열퇴진!—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것이 남조선민심의 공정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김정혁

